

DM, 청구서 관련 토털솔루션 제공

지난 1994년에 설립된 (주)솔버스(대표이사 서용수)는 3가지 사업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솔버스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한마디로 토털솔루션의 제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3가지 사업 영역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분야는 신용카드 사업이다. 카드발급 및 발송 관련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인쇄산업과 관련성이 깊은 DM 및 청구서 등 메일링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고객의 상황과 필요를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솔루션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경쟁업체와의 가장 큰 차별화는 회사내에 설립된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고객 컨설팅을 하고 최적화된 장비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결제 솔루션(SelfPay)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시장의 전망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 분야이다.

이외에도 몽골의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신용카드등을 발급, 발송하는 프로젝트가 가동중에 있으며 국내 다수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솔버스의 서용수 대표이사는 “20여년 동안 축적해온 앞선 기술과 뛰어난 맨파워는 솔버스가 신용카드 등 국내카드 발급업무의 60%, 국내 금융권 카드 및 우편물 발송 업무시장의 90%를 점유할 수 있게 한 힘의 저변”이라며 “솔버스라는 회사 이름은 Solution with us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름뿐만 아니라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 서서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진실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경쟁력의 비결은 자체 연구소 운용

솔버스 시스템사업부의 하희수 부장은 솔버스의 기업 정신은 “진심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것”이며 이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모두가 고객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편의와 수익성 극대화를 돕기 위해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회사의 사업방향이 되었다. 하 부장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경쟁 회사와 차별되는 업계 유일의 연구소를 개설, 유지하게 되었고 개발인력만도 12명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설팅을 하는 한편으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요청 사항을 차기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판매까지만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해 50명에 달하는 현장 엔지니어가 활약하고 있다. 하 부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 등 어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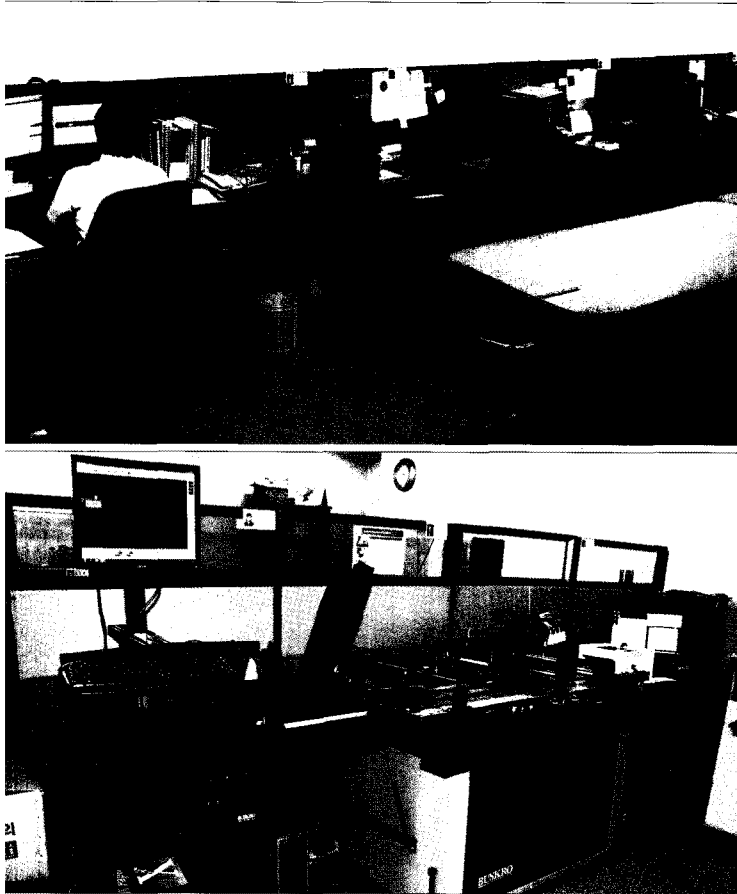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고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솔버스의 차별화이자 강점이다.

최고, 최상의 솔루션 공급은 솔버스의 철학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솔버스가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는 부문은 카드발급 및 발송관련 통합솔루션 부문이다.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솔버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시스템으로는 시간당 최대 3000매의 스마트카드 발급이 가능한 Maxsys Card Issuance System을 선보이고 있다. 솔버스는 대형시스템 뿐만 아니라 은행지점 및 병원 등 창구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소형카드발급기 등 다양한 형태의 카드 발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급된 카드를 페이퍼 캐리어(Paper Carrier)상의 데이터와 매칭하여 부착시키고 여러 종류의 안내물 및 동봉물을 한번에 봉투에 자동으로 동봉하여 발송 해주는 독일 Bow사의 On-line PCS(Plastic Card System) 발송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솔버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등을 신규로 신청할 때, 집 또는 직장에서 받아보는 대다수의 카드동봉



우편물이 솔버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급되거나 발송된 것으로 보아도 될 정도로 솔버스의 시장점유율은 절대적이다.

다양하고 초고속 작업 가능한 메일링솔루션 공급

솔버스의 또 다른 사업부문은 다양한 메일링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KT, 한전에서 발송되고 있는 청구서가 솔버스가 공급한 초고속우편물자동봉입시스템(Bowe Turbo system)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솔버스가 공급하는 이 장비는 출력된 각각의 청구서 및 고지서등을 우편봉투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봉입시스템이다. Bowe Turbo Premium 모델의 경우는 시간당 2만2000통을 자동으로 봉입해 주는 초고속모델이며 올해 열렸던 IPEX에서는 시간당 2만 6000통을 봉입해주는 현존 최고속도의 신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솔버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메일링 솔루션은 다양하다.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In-house용으로 선호하고 있는 중소형자동봉입시스템인 Neopost 시리즈, 초고속 작업으로 개별 주소출력은 물론 상품권 및 DM과 같은 가변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Buskro 잉크젯출력시스템, 주로 고속연속지 프린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Lasermax 선후처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뛰어난 제품이며 개별 고객의 사용환경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맞춤

형에 가까운 솔루션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인쇄업계에 관심 끄는 S-10 잉크젯프린팅솔루션

솔버스가 제공하는 솔루션 가운데 인쇄업계와 가장 관련된 부문은 코닥 잉크젯 프린팅솔루션(Kodak Inkjet Printing Solution)이다. 인쇄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국내택배전표출력물량의 90% 이상, 즉석식 및 주침식복권물량 100%가 코닥잉크젯프린팅시스템을 통해 가변바코드와 넘버링이 출력되고 있다.

코닥의 잉크젯 테크놀로지(Inkjet Technology)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솔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코닥잉크젯프린팅부문의 국내영업과 함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파트너사이다. 현재 솔버스는 지난 2009년 연말에 코닥에서 새로 출시한 S10모델을 주력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고속잉크젯프린터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Hybrid) 잉크젯시스템인 S10모델은 기존 고속가변인쇄시스템이 폼지 인쇄기를 통해 사전 인쇄된 폼지가 나온 후 2차로 드럼이나 또는 프린터헤드가 내장된 박스 타입의 프린터로 가변데이터를 출력하는 오프라인 성격의 별도 공정이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이 과정을 하나의 공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다. 인쇄장비에 프린터헤드를 장착하여 사전인쇄부터 가변데이터출력까지를 한꺼번에 인라인으로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코닥 Prosper S5와 S10 모델은 기존 오프셋윤전기에 코닥Prosper S10 프린터헤드가 장착되어 있다. 기존의 코닥 프린트 헤드는 240dpi/300dpi로 분당 100m~300m의 출력 속도를 내며 수성잉크(dye ink)를 사용하여 속도 및 유지비용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와 수성잉크의 특성상 코팅지 계열에 출력하는 것이 어렵고 운영면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Prosper S5, S10모델은 기존 잉크젯 출력방식을 상당히 개선시켜 스트림테크놀로지(Stream Technology)라는 새로운 개념의 잉크출력방식을 채택했다. 해상도는 600dpi×600dpi이며 분당150m(S5 모델) ~ 300m(S10모델)에 달하는 고속출력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료(Pigment)기반의 수성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바램, 스크래치 및 물번짐에 강하여 코팅된 용지에도 출력이 용이하다. 이로 인해 상품권 및 라벨, DM 등 가변인쇄에서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이미지, 인쇄용지의 선택 폭이 넓으며 저비용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가변인쇄솔루션이다.

이외에도 2010IPEX에서 선보인 신모델 1000, 5000XL은 600dpi×900dpi의 고해상도, 최대 62.4cm폭의 출력영역, 분당 200m에 달하는 빠른 출력속도로 기존 오프셋인쇄를 대체

Interview



하희수 부장

“고객의 입장에서 장비공급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솔버스의 독창적인 분위기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끊임 없이 샘솟는 듯한 서용수 대표이사님의 열정이 솔버스의 회사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설립 이전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시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런 점이 타사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했고 솔버스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사업부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시스템사업부는 무엇보다도 사업부가 다루어야 할 아이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고객에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이를 점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으며 대표이사님의 영향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게 장비를 개선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부문 사업에 시스템사업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솔버스에서 인쇄부문 사업의 비중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대세가 디지털인쇄의 확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강화시켜 나가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쇄부문 사업에 대한 솔버스나 시스템사업부의 홍보전략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장비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홍보에 의존하는 이벤트성 마케팅보다는 고객들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전파되어 가고 저희 장비를 사용해 본 고객들이 다시 찾게끔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홍보전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디지털 풀킬러운전인쇄기이다.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책, 학습지를 비롯한 출판시장, 청구서 및 고지서등 DM 시장 뿐 아니라 일반상업인쇄시장까지 활용할 수 있어 폭 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성장 기대되는 휴대폰 이용 카드결제솔루션

솔버스의 사업부문에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결제솔루션(SelfPay)등도 앞으로 성장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사업부문이다. 기존의 카드 조회기나 PC를 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이용해 고객이 결제하고 고객과 가맹점이 결제내역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셀프페이와 장점은 평소에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번 등록만 해두면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칩을 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통해 인증을 받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 이런 장점으로 배달업종,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 판매업체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될 경우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도 될 사업부문이다.

고객과 끝까지 같이 간다, 솔버스의 이념

솔버스는 고객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서 속 시원하게 긁어 주고자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고객의 인정을 받지 않는 솔루션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드형 연구소 운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단순하게 외국 장비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유통, 판매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니즈에 적극 반응한 신제품과 필요한 사양을 채택한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수준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노력과 투자가 솔버스의 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제 솔버스는 인쇄업계와 보다 가까운 토털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